

15

그리스도인의 합당한 예절

롬 12:9~21

찬송가 278장 (사랑하는 주님 앞에), 찬양 87장 (형제의 모습 속에)



1. 내적인 면모는 외적인 예절을 통해 드러남을 압니다.
2. 형제자매로서 합당한 예절을 지킬 때 교회의 덕이 세워짐을 압니다.



잘 다스리는 장로들을 배나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을
더할 것이니라 (딤후 5:17)

거룩하게 하시는 자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하나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히 2:11)

너희가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로 그를 영접하고... (롬 16:2)



을 마음판에 새기기 (암송)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롬 12:10)

Be kindly affectionate to one another with brotherly love, in honor giving preference to one another. (Ro 12:10)

- ① 말씀에서 핵심이 되는 단어 혹은 구절에 밑줄을 그어 보세요.
- ② 형제를 사랑하고 우애하며 존경하기를 ‘먼저’ 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에 맞게 내 생각 바꾸기

- ① 그리스도인들이 서로를 형제, 자매라고 부르는 이유는 무엇입니까(막 3:35, 갈 4:6, 히 2:11)?
- ② 형제, 자매들의 관계에서 서로 실수하여 상처를 줄 우려가 있습니다.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 우리가 가져야 할 마음자세는 무엇일까요(빌 2:3, 5~8)?

3

내 주변의 형제, 자매들에게는 모두 배울 점이 있습니다. 어떤 것이 있는지를 생각해 보고 적어보세요.

4

그리스도인의 교제에서 상대방의 말을 귀 기울여 듣는 태도(경청)는 매우 중요한 예절입니다. 나는 형제, 자매들의 말을 어떤 태도로 듣고 있습니까?

5

교회 안에서 우리가 지켜야 할 예절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3가지 적어보세요.

1)

2)

3)



을 삶에 적용하기

오늘의 말씀
(말씀 쓰기)

오늘의 기도
(감사 / 회개 / 간구)

일

잠 15:23

Four horizontal lines for writing the word.

Four horizontal lines for writing the prayer.

의

전 5:2

Four horizontal lines for writing the word.

Four horizontal lines for writing the prayer.

화

요 13:34

Four horizontal lines for writing the word.

Four horizontal lines for writing the prayer.

↑

고전 10:33

↓

엡 4:25

↓

빌 2:29

↓

벧전 4:8



에티켓의 유래

옛날 베르사이유 궁전에 한 늙은 정원사가 있었습니다. 늙은 정원사는 충성된 성품을 가진 사람으로서 정성스럽게 정원을 돌보았고 정원의 꽃과 나무를 가꾸며, 아름답게 꽃이 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는 기쁨을 맛볼 수 없었다고 합니다.

정원을 잘 가꾸어 놓으면 궁전에서 조신들과 그 부인들이 꽃밭에 몰려와서 마구 밟아버리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도 마음이 아픈 정원사는 왕에게 감히 탄원의 글을 올렸다고 합니다. 이것이 받아들여져 루이 14세는 어명으로 '에티켓'이라고 쓴 자그마한 팻말을 여러개 만들어서 꽃밭 사이사이에 세워 놓고 그 팻말 안으로만 조심스럽게 걷도록 하였습니다. 에티켓은 'Aticket' 곧 '하나의 푼대'란 뜻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에티켓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이기에 당연히 기대되는 생활 규범이 있고, 신앙인이기에 마땅히 지켜야 하는 생활 양식이 있고, 구원받은 성도이기에 성도의 교제 속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예절이 있으며 소망에 합당한 언행과 예절이 분명히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질문 있어요~



창세기 4장에서 아담의 아들 가인이 그 아우 아벨을 죽인 후에 그 외의 사람은 아무도 없었을 텐데 가인은 누구와 결혼한 것입니까?

모든 것의 시작을 나타내는 창세기에는 제사의 시작과 그것의 의미를 나타내기 위해 특별히 가인과 아벨의 경우만 기록했을 뿐이지 이 두 사람 외엔 아담에게 자녀가 없었다는 것은 아닙니다.

아담과 하와는 창조될 때부터, 그러니까 0살 때부터 자녀를 낳을 수 있는 성인이었습니다. 가인과 아벨 이외에도 수많은 자녀들이 있었을 것이며, 또 가인이 쫓겨난 이후에도 계속해서 자녀들을 낳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벨 대신 셋을 주셨을 때 아담의 나이가 일백 삼십 세였다고 했는데 그 때까지 낳은 자녀들이 아주 많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오랜 시간이 지나는 동안 그 자녀들끼리 결혼을 해서 자녀를 낳았습니다. 그러므로 가인이 ‘나를 만나는 자가 나를 죽이리이다’라고 하며 두려워했던 사람들은 아담의 후손들입니다.

형제끼리 결혼했다는 것을 문제시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근친결혼은 유전적인 이유로 그 후에 금지된 것입니다. 근친결혼을 하게 되면 남편과 아내가 가지고 있는 돌연변이 유전자가 후대로 전해지면서 기형아나 저능아를 낳을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기 때문에 금지되었는데, 아담과 하와 시대에는 이런 돌연변이 유전자가 축적될 위험성이 없었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